

포커스-e제품

A4 복합기 시장에 본격 진출 '선언'

(주)신도리코,
A4고속복합기·프린터 신제품 발표회 개최

취재 | 박지연 기자 |

신도리코(대표·우석형, www.sindoh.com)가 비용절감과 내구성, 다양한 기능 및 솔루션까지 모두 갖춘 A4 고속 복합기 3종과 레이저 프린터 3종을 출시했다.

이번 신제품들은 신도리코가 독자 기술로 설계·개발하고 직접 생산했으며 미국, 유럽 등 세계시장에 먼저 출시돼 그 품질력과 환경친화적 설계를 인정받은 제품들이다. 이 제품들의 발표는 신도리코가 해외 시장에서 성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A4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는 데 큰 의의를 가진다.

신도리코는 지난 2월 17일 서울 성수동 본사에서 기자들 초청, 독자 기술로 개발한 A4 신제품 라인업을 전격 공개하고 시장 공략에 포문을 열었다.

제품설명회에 앞서 김용선 신도리코 마케팅본부장은 "이번 신제품은 합리적인 가격의 초고속 제품이면서도 양면 컬러스캔·복사·프린트·팩스 기능 모두를 최고급 사양으로 종합했으며, 최신 솔루션까지 완벽하게 수행하는 진정한 올인원 제품"이라며 "저렴한 가격만 앞세우고 화질과 속도, 내구성, 부실한 기능 등의 문제점으로 고객의 불만을 쌓아왔던 기존의 A4 복합기 시장을 완전히 바꿔놓을 명품"이라고 자신했다.

신제품 발표회에서 복사와 출력속도가 분당 55매인 MF 4550H가 주력기종으로 소개되었다. 이 제품은 A4 복합기의 취약점이던 복사 화질과 후처리기기 대응력, 내구성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출력량이 많은 중대형 오피스에서도 효율적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제품가격뿐 아니라 유지비용 면에서도 매우 경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MF 4550H는 A4전용으로 개발됐으며, 가격이 동급 사양의 A3 복합기 가격의 1/3 수준이다. 복사와 출력,



▶신도리코는 지난 2월 17일 서울 성수동 본사에서 기자들 초청, 제품 설명회를 열고 독자 기술로 개발한 A4 신제품 라인업을 전격 공개했다.

팩스, 양면 컬러스캔, 양면 인쇄장치, 자동원고 이송장치 기능을 모두 기본으로 장착해 추가비용의 부담을 없앴다. 또 대용량 토너를 적용, 장당 출력비용은 10원 수준으로 매우 낮아 유지비용 면에서도 경제성을 높였다.

MF 4550H는 월 최대 27만5,000매까지 출력할 수 있는 고내구성으로 설계된 튼튼한 제품으로, 타사제품에 비해 사용기간이 길고 잔고장이 적은 만큼 제품 가격을 넘어 총소비용(TCO) 측면에서 보면 소비자에게 훨씬 이익을 주는 제품이다. 게다가, 양면 출력기능과 Paperless Fax 솔루션을 활용하면 더 큰 비용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스캔도 문서 양면을 한 번에 컬러 스캔하는 '1-pass 양면스캔' 기능을 기본으로 내장해 종이 문서를 기존보다 2배 빠르



▶이날 신도리코 직원들이 A4 복합기의 취약점으로 지적된 복사 화질, 후처리하기 대응력, 내구성의 문제를 해결한 주력 모델 'MF 4550H'를 시연해 보이고 있다.

게 전자문서화 할 수 있다. 복사 및 스캔 대기시간도 대폭 개선했고 첫 장 복사 속도도 9.5초로 매우 짧아 문서작업의 생

산성을 높일 수 있다. Real 1200dpi를 구현하는 이 제품은 특히, 기존 A4 복합기의 취약점으로 지적돼 온 스캔화상 및 복사품질 문제는 'Xenon Instant On-Lamp'를 장착해 완벽하게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기존 A4 제품들에는 장착이 불가능했던 문서 분류작업과 스테이플 등의 후처리기를 장착한 것이 눈에 띈다.

이날 신제품 발표회에서는 MF 4550H와 함께 기능을 실용적으로 압축한 55매급 복합기 MF 4550, 45매급 복합기 MF 4550L까지 3종 복합기와 복합기의 기반이 된 레이저 프린터 3종(55매급, 50매급, 45매급) 등 총 6종의 신제품이 선보였다.

한편, 신도리코는 전체 매출의 70%이상을 해외 수출시장에서 올리고 있다. 지금까지 직접 개발, 생산해 수출한 A4용 복합기 제품만 350만대가 넘었으며 2012년까지의 수출 물량 주문도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다.

=잠깐뉴스=

“신도·캐논·후지제록스 등 3사, A4 복합기·프린터 시장 공격적 진출”

기업용 A4 프린팅 시장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삼성전자·HP 등 프린터 업체의 독무대였던 A4 복합기·프린터 시장에 복사기 전문 업체가 본격 진출하면서 복사기와 프린터 업체 영토싸움이 'A4' 복합기 시장까지 번지고 있다.

현재 기업용 사무기기 시장은 A3의 경우 한국후지제록스, 신도리코,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 등 복사기 업체들이, A4의 경우 삼성전자 한국HP 등 프린터 업체가 각축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프린터 업체가 A4 디지털 복합기를 앞세워 A3 주력인 복사기 시장을 공략하는 형태로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기업용 시장은 가격·실용성 면에서 우위에 있는 디지털 복합기 중심으로 빠르게 세대교체가 이뤄지면서 프린터 업체가 주도권을 잡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점차 시장 판도에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인다.

사실 신도리코·후지제록스·캐논 등은 A4 제품 라인업이 있었지만 구색 차원이었으며 주로 속도와 출력 규모를 앞세운 A3 제품이 주력이었다. 그러나 최근 신도리코가 출시한 A4 복합기 3개와 프린터 3개 모델은 가격·기능면에서 경쟁력을 갖췄다. 대표 제품인 A4 복합기 'MF 4550H'는 분당 55장 출력 속도를 지원한다. 가격도 저렴할 뿐만 아니라 양면 컬러 스

캔에서 복사·프린트·팩스 기능을 모두 지원한다.

캐논코리아 비즈니스솔루션도 지난 1월 21일 좁은 공간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A4 컬러 레이저복합기 'MF9300' 시리즈 3종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기존 A3 컬러 복합기의 성능은 유지하되, 본체 크기와 전력 소모량은 줄인 게 특징이다. A3 출력 빈도는 낮은 중소기업용으로 대기 시 소비전력이 1.2W에 불과하며, 워밍업 시간과 첫 장 출력속도는 각각 60초, 12.5초로 동급대비 빠르다.

신도리코·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 등이 A3에 비해 가격 거품을 뺀 A4 라인업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복사기 업체들이 A4 제품 라인업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보여 시장 주도권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복사기 업체가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A4 제품을 강화하면서 A4 복합기 시장을 놓고 복사기와 프린터 업체의 '주도권 싸움'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국내 디지털 복합기 시장은 대수 기준으로 지난 2007년 A3가 16.7%에서 올해 13.2%로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A4는 2007년 83.3%에서 올해 86.8%까지 치솟을 정도로 A4 제품이 시장을 주도해 왔다.